원자력안전위원회 보도자료

보도시점 2025. 11. 14.(금) 15:30 (2025. 11. 15.(토) 조간) 배포 2025. 11. 14.(금) 09:00

“안전은 현장에서 완성된다” 원안위, 전국 방사선안전관리자 포럼 열어

- 방사선안전관리 우수기관 및 안전문화 확산 유공자 표창
- 안전관리 우수사례와 노하우 공유

최근 방사선 피폭 사례를 계기로 **현장 안전관리**의 **중요성**이 **강조**되는 가운데 **원자력안전위원회**(위원장 최원호, 이하 원안위)는 방사선 안전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**확산**하고, **안전관리자**의 **실천 역량**을 **강화**하기 위해 「**2025년 하반기 방사선안전관리자 전국 포럼**(이하 포럼)」을 **14일(금)**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하였다.

이번 포럼은 **2021년 4월 첫 발대식** 이후 **11회째**를 맞이하였으며, 산업·의료·교육 등 **다양한 분야**의 **방사선안전관리자**들이 한자리에 모여 **현장의 경험**과 **우수사례**를 **공유**하고, **‘안전은 현장에서 실천으로 완성된다’**는 공감대 속에 **안전한 방사선 이용 환경 조성**을 위한 **실천 의지**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되었다.

이날 행사에는 최원호 원안위 위원장,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, 조병옥 한국방사선안전협회 이사장을 비롯해 **방사선안전 유공자** 및 전국의 **방사안전관리자** 등 **약 200명**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.

포럼에서는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안전문화 확산을 장려하기 위해 **‘방사선안전관리 우수기관**(이하 우수기관*)’ 5곳과 **‘안전문화 확산 유공자****’ 1명에 대한 **시상식**이 진행되었다.

* **(방사선안전관리 우수기관)** ①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, ②한양대학교, ③서울대학교, ④LG디스플레이㈜ 구미공장, ⑤한국표준과학연구원

** **(안전문화 확산 유공자)** 정교성(한국원자력연구원)

창원경상대국립대학교병원은 경영진의 적극적인 관심과 예산 지원 아래 피폭 저감 활동과 부서 간 소통체계를 강화한 점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으며, **한양대학교**는 개인선량계 관리에 스마트태그 시스템을 도입하고 자체 안전관리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혁신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한 성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.

이와 함께 **수상기관**의 **안전관리자**들은 **현장**의 **우수사례**와 **안전관리 노하우**를 **공유**하였으며, 규제전문기관인 **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(KINS)**은 2025년 **정기검사**를 통해 도출된 **주요 시사점**을 **발표**해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.

최원호 위원장은 축사에서 “오늘 포럼이 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**‘변화와 실천의 장’**이 되길 **기대**한다”라며, “원안위는 앞으로도 제도와 현장의 간극을 세심히 살펴 **규제**를 **합리화**하고, **방사선**에 **이해확산**을 통해 **산업안전**과 **중대재해 예방** 등 **방사선안전 전반**에 대한 **체계적 지원**을 이어가겠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방사선방재국 방사선안전과	책임자	과 장	김기환 (02-397-7330)
		담당자	사무관	김주현 (02-397-7340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